광양시, 백운산 고로쇠 약수제 개최

27일 옥룡면 동곡리 약수제단서

최고 품질 고로쇠 약수 생산 다짐

광양시는 고로쇠 약수의 풍성한 채취를 기원하기 위한 '제38회 백운산 고로쇠 약수제'를 오는 2월 27일 옥룡면 동곡리 약수제단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약수제 행사는 영산인 백운산 산신께 시민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광양시립국악단(지휘 강종화)의 식전 공연과 12개 읍·면·동의 화합과 상생을 기원하는 합수제가 진행된다.

또 광양향교(전교 조동래) 주관으로 헌작, 축문 등 기본 제례 순으로 진행되며, 고로쇠 약수가 풍족히 채취되고 지역 경제가 발전해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약수협회 회원들이 대한민국 원조 명품 고로쇠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수액 채취 기자재 청결상태 유지와 정제시설 확충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전국 최고 품질의 고로쇠 약수 생산을 다짐할 계획이다.

정해종 문화예술팀장은 "대한민국 원조 백운산 고로쇠 약수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망간 등 인체에 유익한 무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고 특히, 게르마늄이 타 지역 보다 많아 항암효과에 탁월하다"며, "고로쇠는 채취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기가 지나면 마시기 어려운 만큼 백운산 고로쇠 약수를 많이 음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올해에도 고로쇠가 많이 채취될 수 있도록 이번 약수제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양시는 타지역 고로쇠에 대한 품질 차별화를 위해 지난해 사업비 3억5천만 원을 투입해 낡고 노후화 된 채취호스와 집수정 교체는 물론, 고로쇠 포장재를 지원했다.

특히,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지리적 표시 라벨에 채취자 이력이 포함된 QR코드를 삽입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채취에서부터 유통단계까지 위생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광양=김충권 기자

순천시, 저소득층 교복구입비 지원

순천시는 저소득층 자녀 500명에게 1억5천만원 상당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복구입비 지원은 '순천시 6대 행복시책사업'으로 저소득 가정의 교복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중·고등학교 신입생으로 교복구입 신청일 기준으로 순천시에 주민등록들 두고 있는 학생이다.

신청서류는 보호자 또는 학생의 통장 사본과 교복구입 영수증을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고등학생 동복은 오는 2월까지 신청을 받아 2월부터 3월에 지원할 계획이고, 중·고등학생 하복은 오는 6월에 신청 받아 7월에 지원할 계획이며, 중학생 동복은 9월에 신청을 받아 10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기준은 1인당 동복 20만원 이내, 하복 10만원 이내로 학교별 공동구매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조충훈 시장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이번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로 단 한명의 수혜대상자도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인재양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화순군, 인구정책팀 신설 등 인구늘리기 '온힘'

인구정책 총괄…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발굴

화순군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가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인구문제를 총괄하는 인구정책팀을 신설하는 등 인구늘리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화순군에 따르면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 '인구정책팀'을 기획감사실에 신설, 지난달 29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통계청의 2017년 인구동향에 따르면 화순군 합계 출산율은 2016년 기준 1.126명으로 도내 21위이며, 전국 평균인 1.172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군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 인구를 늘리기 위해 신설한 인구정책팀을 통해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화순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가칭)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민·관이 협력해 화순군에 적합한 출산·양육·아동복지 및 고령화, 귀농·귀촌, 청년정책 등 폭넓은 인구문제 극복 종합대책을 마련해 통합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군은 인구유출과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군민과 함께 공유하고 민·관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관내 기관·사회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인구늘리기 캠페인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정활력과에서 추진한 출산·양육·아동복지 종합계획을 인구정책팀으로 이관해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임신에서 양육까지 One-Stop 지원센터 조성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2018년 LH와 MOU 체결을 통해 250~30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을 2021년 준공해 공급할 계획이다.

그 동안 1년 이상 부모 모두 화순군에 거주하면서 태어난 둘째 아이부터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을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중 한 사람만 거주해도 첫째아이부터 월 10만원씩 23개월을 지원키로 완화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순천시, 청사 건립 아이디어 공모 설명회

'대학생 건축설계 아이디어 공모전' 일환

순천시가 28만 시민의 염원을 모아 새로운 미래 100년을 내다보고 추진하고 있는 신청사 건립의 열기와 희망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20일 순천시에 따르면 미래 청사 모습을 미리 그려보고, 새로 건립될 청사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이고자 '대학생 건축설계 아이디어 공모전'의 일환으로 지난 12일 장천동 일원에서 23개팀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현장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 설명회는 방학기간 동안 본격적으로 작품 준비에 몰두할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청사 건립방향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고, 작품설계 진행상황 점검과 동시에 순천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청사 건립 기본방침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곧바로 청사 내부 및 확장 부지(안) 3개소 곳곳을 둘러보며 시 주요시설 및 건물, 도로 등 주변 현황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청사 건립 PM(주석중 前 전남대 교수) 주재로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공모전과 관련된 그동안의 궁금증을 해결하기도 했다.

또한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둘러보며 자연과 생태 보존이라는 도시 비전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더 높임으로써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참가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청사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공모 참가자들의 이해도를 높여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오는 23일 실시되는 2차 현장 설명회 및 참가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그 열기를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공모는 지난해 12월 참가신청 접수 결과 67개 대학 156팀 333명이 신청을 마쳤으며, 참가자들은 오는 3월 30일까지 작품 제출하여야 한다.

순천=김종영 기자

나주시 색소센터, 배 활용 동결건조 신제품 개발

비트 품은 나주배 · 지암지암까까 등 신(新)제품 출시

나주시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이하 색소센터)가 나주 배 생산량 증가와 소비 부진으로 인해 재고가 누적된 저장 배를 활용한 동결건조 제품인 '비트 품은 나주배'를 개발·출시했다고 밝혔다.

색소센터에 따르면 현재 배 가공제품은 주로 주스 39%, 넥타 27%, 기타 가공제품 2% 등 한정된 형태다. 이에 새로운 소비자 욕구에 맞춘 소비시장 창출을 위해서는 배 가공상품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나주 배 가공 시 문제점은 박피, 절단 과정에서 조직 손상이돼 가공 및 저장 과정 중 과피 흑변, 과실 갈변 등 문제가 발생하여 유통·판매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금번에 개발된 '비트품은 나주 배'는 그간의 문제점을 말끔히 해소함과 동시에 나주 배 고유의 맛, 영양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과일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과일 칩 형태로 만들어져 언제 어디서나 애용할 수 있는 동결건조 제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비트품은 나주 배'는 나주 배에 베타인과 안토시아닌 성분에 풍부한 비트 천연색소를 함유시켜 항산화, 혈류량 증가,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좋다.

색소센터 관계자는 "'지암지암까까'를 자체브랜드로 상표등록을 마쳤으며, '비트품은 나주 배'에 이어 '노란 울금 입은 나주 배', '클로로필 나주 배' 등 나주 배를 활용한 새로운 신제품들을 시리즈로 출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지암지암까까라는 브랜드명은 과거 조상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며 구전되어온 단동십훈의 교육동작의 하나인 지암지암에서 따온 것"이라며, "손을 반복해서 쥐락펴락하는 아동의 소근육 발달에 도움을 주는 표현과 여기에 과자를 의미하는 까까를 합쳐 우리말로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